이기는 삶

진정한 강자(强者)

세상은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전쟁터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강자에게 먹히는 것이 먹이사슬의 이치다. 그러나 반드시 힘이 세다고 강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동물이 최상위의 포식자가 된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에서의 힘은 그 사람이 가진 돈과 지위에서 나온다. 돈이 힘이고 지위가 힘이다.

금권선거가 판치던 시절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만 하면 투자금의 두 배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권력을 가지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벌이 있고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치판에 뛰어들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온갖 힘을 쓰는가 보다.

성공의 끈 중에도 학연과 지연의 끈이 튼튼한 사람이 출세할 확률이 높다.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그래서 서울대가 아니면 연세대나 고려대나 카이스트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고 승진도 빠르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은 학연과 지연이 있어야 출세하는 세상이다.

그렇지만 좋은 학벌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교육받은 낙오자가 넘쳐난다. 어린 시절부터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고 하여 항상 우수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다 보니 막상 현실 세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매사가 독선적이고 자신만 옳다. 모든 사고의 기준이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양보할 줄 모른다. 직장 상사 및 동료들과 마찰을 빚게 되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또 다른 직장에 취직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직장에 취직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결국 겸손하고 인성이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혼자 잘나고 똑똑해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성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잘나가던 국회의원도 인성이 무너지는 순간 정치생명은 끝이다. 민심이 떠나버린다. 그러므로 끝까지 잘해야 한다. 자신이 잘해서 국민이 밀어준 것이 아니라 잘하라고 밀어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영화의 대사는 정말 현실 세계의 생리를 대변하고 있다. 살아남는 자가 되려면 결국 인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사람들에게 겸손에 대한 뜻을 물으면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다.

임금은 백성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임금은 백성이 원하는 일을 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거슬린 임금은 폭군이나 아첨꾼에 휘둘리는 무능한 임금으로 전락(轉落)되어 임금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게 된다. 진정한 강자가 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진정한 강자가 되는 것이다.*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천당이 죄인에게는 지옥"

그날에는 하나님이 된 의인들은 빛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벗지 못한 사람은 지금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이 될 때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무궁토록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빛으로 화한 의인의 몸에서 발산하는 빛이 너무 너무 뜨거운고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망의 신이 다 멸하여 없어진 고로 의인의 몸에서 발산되는 빛으로 말미암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무궁토록 뜨거워서 펄펄 뛰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자세~

효능: 등이 앞으로 굽은 사람에게 특히 좋은 자세. 갑상선과 부갑상선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몸 안에서 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도와준다.

동작①: 등 대고 누워서 양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양 손은 엄지를 안으로 넣어 주먹을 쥐고 팔꿈치를 구부려 가슴에 놓는다.

동작②: 숨을 마시고 내쉬며 양 팔꿈치로 바닥을 힘껏 밀어 가슴을 들고, 고개를 뒤로 젖혀 머리의 정수리를 바닥을 대려고 노력한다. 척추 뼈가 하나하나 펴지는 느낌으로 유지한다. 10초 유지 5회.

폐 기능 향상에 좋은 코브라 자세~

효능: 복근과 앞 목이 쫙 펴지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 자세이므로 폐기능 향상에 탁월하다.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항상 뒷목이 뻐근한 사람,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에게 효과적이다.

동작③: 바르게 엎드린 자세로 다리를 쭉 펴서 모으고 팔을 굽혀 손바닥을 가슴 옆에 둔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천천히 깊은 호흡을 5~10회 반복한다.

동작④: 숨을 마시면서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들어 상체를 밀어내듯이 서서히 올린다. 시선을 뒤쪽 발뒤꿈치를 바라보듯이, 갈비뼈와 복부를 열고 숨을 5~10초간 참는다. 숨을 내쉬면서 팔로 바닥을 미는 힘보다 배를 바닥에 붙이려는 힘이 강하도록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배 가슴 턱 순으로 돌아온다.*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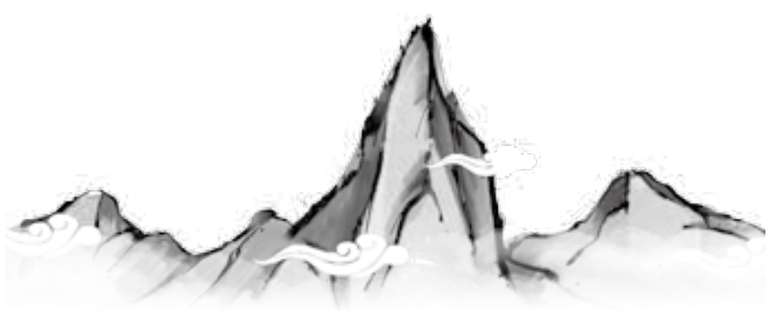
동작④

격암유록 新해설
제100회

큰 내를 건넘이 이로우니 목도(木道)가 이에 행함이라 (利涉大川木道乃行이섭대천목도내행)

松家田(송가전)

龍馬河圖先天儒 룡마하도선천유와
金龜洛書後天佛 금구낙서후천불이
神仙世界 신선세계 도라오니
相克陰陽猜忌嫉妬 상극음양시기질투
天鷄聲천계성에 除去 제거하고
相生之理無爲化 상생지리무위화로
奇事異蹟出現 기사이적출현하니
日光東方光明世 일광동방광명세라
발가온다 발가온다
鷄龍無時未久開東 계룡무시미구개동
仙運日月擢捉 선운일월최촉하니
槿花江山 근화강산 발가온다
비쳐오네 비쳐오네
昏衢長夜朝鮮 혼구장야조선땅에
人增壽인증수와 福滿家 복만가로
仙國瑞光선국서광비쳐온다
萬邦父母槿花江山 만방부모근화강산
擇名택명조타 無窮者무궁자라



유도는 복희씨의 용마하도 선천운이요 불도는 문왕의 금구낙서 후천운인데 선도는 하락영부 중천운으로 신선세계가 돌아오면 음양의 상극으로 인간의 시기 질투가 천계(天鷄=봉황=신선=정도령)가 우는 소리에 사라지고 상생의 이치로 말미암아 무위이화(애써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잘 이루어짐)의 기사이적이 출현하니 동방 땅 한국이 태양처럼 빛나는 광명한 세계가 되느니라. 밝아온다. 밝아온다. 계룡이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니 동이 트이고 신선 세계를 재촉하니 무궁화 강산 조선이 밝아온다. 비쳐오네. 비쳐오네. 어둡고 두려운 긴긴밤이 물러가고 조선 땅에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며 집집마다 복이 차고 넘치는 신선의 나라의 서광(瑞光)이 비춰온다. 세계만방의 부모국인 무궁화 강산 택명(擇名)도 좋구나. 이름 그대로 영원무궁토록 살 자라.

可憐가련하다 百姓백성들아
八鄭七李蜂起時팔정칠이봉기시에
豫曰皆聖出名將 예왈개성출명장에
誰知烏之雌雄수지오지자웅으로
千鷄之中有一鳳천계지중유일봉에
어느聖성이 眞聖진성인고
眞聖一人 진성일인알랴거든
牛聲入中 우성입중
陷地死地嘲笑中함지사지조소중의
是非시비만흔 眞人진인일세

가련하다 백성들아 팔정칠이(八鄭七李) 즉 가짜 정도령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날 때 모두 내가 예언서에서 말하는 성인이요 명장이라 하나 지혜 있는 자 누가 있어 까마귀의 암수를 구별하겠는가? 천 마리의 닭 가운데 오직 한 마리의 봉황(신선=정도령)이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짜 성인(정도령)인고? 진짜 성인 한 분을 알려거든 소 울음소리 나는 곳을 찾아 들어가소. 그 분은 비웃음, 음해, 핍박을 받아 목숨이 위태로운 사지(死地=감옥)로 끌려갔던 분으로 옳다 그르다 시비가 많은 진인일세.

三人一夕雙弓十勝삼인일석쌍궁십승
人口有土 인구유토안잣서라
鷄龍白石勝武器 계룡백석승무기로
山魔海鬼隱藏산마해귀은장일세
一心修道眞正者 일심수도진정자는
海印仙藥 해인선약바더살소
無所不能海印化무소불능해인화로
利出山渡海變天地이출도해변천지를
先後中天海印仙法선후중천해인선법
長男長女장남장녀 마튼 故고로
震巽兩木末世聖진손양목말세성이
風雷益卦鷄龍 풍뢰익괘계룡으로
利涉大川木道乃行이섭대천목도내행
天道仙法出現 천도선법출현하니
女上男下地天泰 여상남하지천태
兩白三豊傳양백삼풍전했다네

삼인일석(三人一夕=닦을 수修) 즉 몸과 마음을 닦아 무극대도를 완성하사 궁궁 십승 하나님이 좌정(坐定) 하셨느니라. 인구유토(人口有土)는 앉을 좌(坐)의 파자. 정도령이 백석(白石=素砂)에서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되는 감로해인을 임의 용사하니 마귀가 산으로 바다로 도망가서 숨어 버리네. 일심으로 뜻과 정성을 모아 십승의 도를 닦는 참되고 올바른 자는 해인 선약을 받아서 영생하소. 능히 하지 못할 바 없는 해인의 무궁조화로 산을 옮기고 바다를 건너게 하며 천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느니라. 선후천이 가고 중천이 오면 해인선법을 장남장녀가 맡은 고로 진손양목이 말세의 성인인데 풍뢰익괘(風雷益卦)의 계룡(=손진)이니라. 양목(兩木)은 청림도사(靑林道師)이며 '풍(風)은 손괘=장녀=계, 뢰(雷)는 진괘=장남=룡'이다. 이로움은 천지개벽이란 큰 내를 건너감에 있으니 목도가 행함이라. 천도선법이 출현하여 여상남하 지천태의 양백삼풍을 전하느니라. 목도는 진손양목 즉 청림도사의 불사영생의 도를 말하며 감로해인의 무궁조화로써 천지개벽을 넘어간다. (구원선)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간 자에게 할 말이 있지 건너가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여상남하 지천태는 중천의 선운(仙運)을 64괘중의 하나인 지천태괘로 설명한 것이다. 태(泰)란 태평, 안태, 형통하다는 뜻이니 만사가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53

생명샘

수소경제

옛날에 물로 가는 자동차가 발명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만일 이걸 발명한다면 그야말로 그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릴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개발하려고 매달리고 있다. 지천으로 널린 것이 물이므로 그냥 공짜로 퍼담아서 연료로 쓰면 되니 환상적인 일이다.

물로 가는 차 개발했다?

중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물을 한번만 공급하면 500km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예전에 있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19. 5.27일 보도한 내용인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려고 소동이 있었다고 한다. 중국 허난성 난양시에 위치한 청년차(靑年車)라는 기업에서 물을 한번 공급하면 500km를 가는 자동차를 개발했고, 주행실험에도 성공했다고 하니 가히 놀랄 만한 뉴스였다. 확인해 보니 물에 알루미늄 합성물을 첨가하여 수소를 발생시키고 수소와 물을 다시 결합할 때 생기는 에너지를 동력으로 가는 자동차라는 것이다. 이론은 그럴듯하나 물에 첨가하는 알루미늄은 휘발유에 맞먹는 가격이므로 경제성이 없어 실용화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적 재앙의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Carbon-Neutral)을 이루자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주의 75%가 수소

탄소중립 대책으로 대두되는 것 중 중요한 것은 수소경제(Hydrogen Economy)이다. 수소경제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화석연료 대신 수소가 주요 연료가 되는 미래의 경제를 말한다. 수소는 우주에 75%가 있는 흔한 원소인데다가 석유나 LNG를 정제하거나 물을 전기분해하여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가 개발되어 현재 시판중이다. 수소차는 진정한 의미에서 물로 가는 차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만일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경제성이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그야말로 석탄 석유를 뛰어넘은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평택제단 : (010)7516-159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浜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